

‘김도영 장기 이탈 가능성’ KIA, 다시 꼬여버린 실타래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간판스타 김도영이 또다시 햄스트링(허벅지 뒤 근육) 부상을 당하며 전열에서 이탈했다. 갈 길 급한 KIA는 김도영의 공백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다시 고민에 빠졌다.

김도영은 지난 27일 광주 키움 히어로즈전에서 부상을 입었다. 5회말 2사 3루에서 1타점 좌전 적시타를 때려낸 뒤 2루 베이스를 훔쳤으나 도루 직후 오른쪽 허벅지에 불편함을 호소했다.

경기에서 빠진 뒤 구단 지정병원으로 이동한 김도영은 자기공명영상(MRI) 검진 결과 오른쪽 햄스트링 손상 2단계(그레이드 2) 진단을 받았다. 28일 실시한 교차검진에서도 동일한 소견을 들었다.

김도영은 3월22일 NC 다이노스와 정규시즌 개막전에서 왼쪽 허벅지에 통증을 느꼈고, 검사 결과 왼쪽 햄스트링 손상 진단을 받았다. 당시 근육 손상 1단계(그레이드 1) 소견을 받은 김도영은 재활 끝에 약 한 달 뒤 팀에 돌아왔다.

그러나 이번엔 햄스트링 손상 2단계 소견이 나와 부상 상태가 더 심각하다. 지난 부상보다 복귀까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장기간 이탈이 예상된다.

지난 시즌 최우수선수(MVP)인 김도영 없이 개막 이후 한 달을 버텨던 KIA는 또다시 실타래가 꼬였다. 이번 시즌 27경기에서 타율 0.330 7홈런 26타점 19득점 OPS(출루율+장타율) 1.008로 맹활약했던 김도영의 이탈은 너무나 뼈아프다.

이번 시즌 내내 지독한 부상 악령에 시달리고 있는 KIA는 현재 전력에서 김도영만 빼진 것이 아니다. 중심 타자 나성범이 오른쪽 종아리 근육 손상 부상을 당한 뒤 한 달 넘게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외국인 타자 패트릭 위즈덤은 허리 통증

나성범·위즈덤·김선빈 등에 이어 간판스타 김도영까지 부상 악재

김도영, 햄스트링 2단계 부상으로 장기 이탈 예상... 4주뒤 재검진



으로 지난 13일 1군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설상가상으로 주전 2루수 김선빈은 왼쪽 종아리 근육이 손상돼 이번 시즌에만 3차례 부상을 입었다.

마운드에서도 부상자들이 발생했다. 필승조 왼손 투수 곽도규는 지난달 왼쪽 팔꿈치 인대 수술을 받아 시즌을 일찍 마

리했고, 우완 활동하는 휴식일이던 지난 8일 숙소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이동하던 차량과 부딪혀 허리 부상을 당했다.

최소 6주 동안 안정이 필요한 활동하는 사실상 전반기 복귀가 어렵다. 부상병동 속에서 디펜딩 챔피언의 위용

은 사라진 지 오래다. KIA는 이번 시즌 26승 26패로 7위에 머물러 있다.

부상자들이 팀에 돌아와 방동의 신호탄을 쏘아 올려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핵심 선수인 김도영까지 빠지자 KIA 이범호 감독의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뉴시스

순천시, 생활체육 이용자 2년 새 187% 증가

생활체육 프로그램으로 시민건강·도시활력 이끈다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시민 건강 증진과 도시 활력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생활체육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최근 2년간 시에서 운영하는 체육 프로그램 이용자 수가 2022년 39만 건에서 2024년 73만 건으로 1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민 삶 속에 생활체육이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있다는 평이다.

◇ 언제나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

순천시는 팔마스포츠펀더를 비롯해 문화건강센터, 신대 스포츠센터 및 유·청소년 수영장, 어울림센터, 국가정원스포츠센터, 조곡생활체육공원, 상사·해룡파크골프장 등 도시 곳곳에 생활체육 시설을 촘촘하게 확충해 왔다.

특히 어울림센터는 도서관과 체육 시설이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운동하고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통합형 체육센터로 주목받고 있다.

다목적 체육관과 장애인 당구장, 체력단련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춰주며 관람석 평면화, 출입문 단차 제거, 완만한 경사로 등 장애물 없는 환경을 조성해 시설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시는 시민들의 높아진 생활체육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인프라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외서면에는 45층 규모의 파크골프장이 조성되고 있으며, 연향동 지구 내 국제규격수영장과 배드민턴 전용구장 등을 구상하고 있

다. 또한, 2031년을 목표로 한 순천 남해안 남중권 종합스포츠파크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며, 생활체육 기반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 시민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생활체육 프로그램 이용자 수 2년 새 187% 증가

순천시가 운영하는 생활체육 시설에서 헬스, 수영, 댄스, 요가, 축구 등의 프로그램 이용자 수는 2022년 39만 건에서 2024년 73만 건으로 187% 늘었다. 이는 그만큼 건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순천 시민의 일상에 생활체육이 깊숙이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는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외에도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경로당, 야외광장, 행정복지센터 등 강습이 필요한 곳으로 직접 찾아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생활체육교실’을 운영 중이다. 지도자 19명이 순천시 전역 90개소에서 요가, 체조, 탁구, 게이트볼 등을 가르치고 있으며, 하루 평균 850여 명이 참여한다.

또한, 동천과 호수공원 광장 등에서 지나가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건강체조 프로그램 ‘해달맞이 생활체육 교실’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2025년 하반기부터는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을 통해 초·중·고등학생 및 동년령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볼링, 복싱, 요가 등 다양한 체육 종목을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순천/정성민 기자

여자 축구대표팀, ‘남미 강호’ 콜롬비아 상대... 안방 연습 조준

30일 인천서 1차전·내달 2일 용인서 2차전... 지난해 10월 신상우호 출범 후 첫 홈 경기

한국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이 남아메리카 강호 콜롬비아를 상대로 연습에 도전한다.

신상우 감독이 이끄는 여자대표팀은 오는 30일 오후 7시 인천 남동아시아드 럭비경기장에서 콜롬비아와의 쿠광플레이 초청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 친선 경기 1차전을 치른다.

내달 2일 오후 7시에는 경기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2차전이 예정돼 있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9위’ 한국은 아시아축구연맹(AFC)에서 일본(5위), 북한(9위), 호주(16위), 중국(17위)에 이어 5번째로 높다.

이번에 상대할 ‘FIFA 랭킹 21위’ 콜롬비아는 남아메리카축구연맹(CONMEBOL)에서 브라질(8위) 다음 2번째로 높은 순위를 자랑한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해 10월 폴린 벨 감독의 후임으로 신 감독을 전격 선임하면서 새판을 짜다. 첫 목표는 내년 3월 호주에서 열린 2026 AFC 여자 아시안컵에서의 호성적이다.

신 감독 체제에 돌입한 여자대표팀은 지난해 강호들과의 원정 경기를 통해 실전 경험을 쌓았다.

일본(0-4 패), 스페인(세계 2위·0-5 패), 캐나다(세계 7위·1-5 패)에 3연패를 당했지만, 세계 최고들과의 격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새해 들어서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린 친선 대회인 ‘핑크레이디스컵’에 참가했다.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세계 50위·3-0 승), 태국(세계 47위·4-0 승), 인도(세계 69위·3-0 승)에 3연승을 거두며 자신감을 끌어올렸다.

다만 지난 4월 비슷한 실력의 호주를 상대로는 0-1, 0-2로 연패를 당하면서 아쉬움을 삼켰다.

이번 콜롬비아전은 신상우호의 출범 이후 첫 홈 경기로 큰 의미를 갖는다.

그만큼 한국은 이번 안방 2연전을 승리로 장식하겠다는 각오로 무장한다.

신 감독은 세대교체를 진행하며 명단을 구성했다.

새로 발탁된 골키퍼 우서빈(서울시청), 공격수 박수정(울산과학대)은 2024 콜롬비아 20세 이하(U-20) 여자 월드컵 16강 진출의 주역들이다.

노르웨이 2부리그 몰데 FK로 이적해 해외 무대를 누비고 있는 전유경도 포함됐다.

여기에 한국 여자 축구의 전설인 지소연(시애틀·미국)을 비롯해 이금민, 최유리(이상 버밍엄·잉글랜드), 김혜리(우한·중국), 이영주(레반테·스페인), 김신지(AS 로마·이탈리아) 등도 합류해 기대감이 고조된다.

뉴시스

진도군, 2025 전국 종별 육상경기대회에서 금빛 질주!

금메달 4, 은메달 1개 쾌거, 창단 3년 만에 육상 강자 도약

진도군 육상팀이 지난 5월 19일부터 23일까지 열린 전국 종별 육상경기 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4개, 은메달 1개를 획득해 육상분야에서 전국적인 강군(強郡)으로 떠오르며 진도군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이번 성적은 참가팀 중 최다 기록으로 남보하나(여)가 3,000미터 장애물 달리기에서 금메달, 임태건(남)이 800미터 달리기에서 금메달, 이서빈(여)이 800미터와 1,500미터에서 금메달(2관왕), 이주니(남)

가 10,000미터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진도군청 육상팀은 2023년에 정식 창단(감독 1명, 지도자 1명, 선수 7명) 된 후 불과 3년 만에 전국대회 정상급 팀으로 도약하는 저력을 보여줬다. 진도군은 선수들의 훈련비와 장비 지원, 전문 지도자 고용 등 창단 초기부터 체계적인 지원을 해왔고, 선수들은 각종 전국 단위 대회와 국외 선수권대회 등에서 입상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진도군청 육상팀은

창단 3년 만에 전국 최정상급 기량을 대내외에 입증했고, 진도군은 이제 육상뿐만 아니라 전지 훈련지로도 각광받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체육시설 투자와 재정지원을 통해 ‘스포츠로 성장하는 진도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진도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육상 29개 팀 10,307명(연인원)을 유치해 대한육상연맹 육현표 회장이 직접 진도군을 찾아와 선수단을 만나기도 했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육상, 럭비, 족구 등 동계 훈련팀과 대회 유치를 통해 총 46여 명의 경제적 효과를 거뒀다.

진도/오재명 기자

동·호지정
계약 중

3,214세대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되다.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X1 | FORENA

방문에약시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증정!

※ 상기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PREMIUM6

NO.1 BRAND	총 3,214세대 대단지 품격	원스톱 도보 학세권	일상을 높인 특화설계	다채로운 커뮤니티	쾌적한 에코라이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자이와 포레나의 합작	복구를 대표할 대규모 브랜드 타운	단지내 어린이집 및 단지 앞 경양초, 운암중 등 안심 학세권	채광과 조망을 고려한 남향 위주 단지 배치, 조망형 유 리난간 적용, 세대 전용 향 고 등	교보문고 북 큐레이션, 오 븐 커머스이전 전 타석 GDR골프연습장 및 스크린 골프 등	약5.5만㎡ 규모의 단지 조 경과 운암산, 중의곡원 등 힐링 자연환경

발코니
무상

중도금
무이자

일부 품목
무상

+

파격적
혜택

총 3,214세대 중 일반분양 1,192세대 [전용 59㎡ / 75㎡ / 84㎡]

062) 607-8338

세형 운암 3단지 재건축중비사업조합 | 세형 GS건설 | 세형 대한화/건설 | HDC엔디산업개발